6. 바실리 마르마초프 우크라이나 내무부차관 면담

– 이고르 레페슈코 이민국장, 세르히 칼리욱 국제국장, 유리 자니크 국제협력과장 배석

○ **마르마초프 내무부차관 모두 발언**

-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인 문제관련 특위를 구성한 바 있으며, 우리측에서는 루첸코 내무장관 진두지휘하 내무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 대사관이 긴밀히 협력중임.
- 5.29 제2차 고려인특위를 구성할 예정임. 이 때 외교부도 참여할 예정이며, 앙케이트관련 협의를 할 예정임.
- 올 1월 16일 내무장관령 발령 뒤 많은 사람이 국적 회복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며, 현재 968명이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행정적·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내무부와 출입국관리소 차원에서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고려인의 법적 지위문제의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는 고려인 자신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레페슈코 이민국장**

- 현재 180일 이상 체류자는 3,000명 이상이며, 이들은 주로 우즈벡 출신 고려인임. 이들중 211명은 학업 목적 체류중이며, 197명은 노동허가증을 받은 사람들, 38명은 공무, 1,828명은 개인적 목적

방문자들이고, 778명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임. 이러한 숫자는 개략적인 것임.

- 한편 우즈벡에서 이민을 온 사람의 숫자는 총 6,100명에 달하며, 이중 3,100명 정도가 고려인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현재 한국대사관에서 조사한 앙케이트 결과가 내무부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들의 합법적 체류를 위해 대사관과 내무부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앙케이트 조사결과 무국적고려인을 분류해 보면, ▶ 합법적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 ▶ 모든 서류는 갖추어져 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 ▶ 서류도 미비하고 출입국 도장이 안 찍힌 사람, ▶ 우즈벡에서 이민왔으나 아무런 서류가 없는 사람 등으로 분류됨. 이중 4번째 부류가 가장 복잡한 처리 과정이 필요함. 이들은 서류미비뿐 아니라 신분이 불법체류자이므로 복잡함. 경찰이 체포하거나 했을 때 아무런 신분증빙서류가 없어서 처리가 곤란함.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우즈벡 출입국관리소의 협조도 필수적임. 일주일 전 러시아에서 우즈벡 관리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더니 협조하겠다고 했음.

○ **이범관 의원**

- 고려인들은 100년 전부터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이주해왔음. 그러나 소연방 해체 후 이제 그들의 2-3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
-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것은 CIS지역에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있고, 이중 약 5만명이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추상적인 숫자이므로 실체 파악이 시급함.
- 고려인 이민은 역사적 산물이고, 이들은 법률적 무지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무국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들에 대해 모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임.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우크라이나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시킬 예정이며, 재정적 지원방안을 찾아보려 함. 그런 과정에서의 절차적 어려움을 우크라이나 정부

에서 우호적으로 해소해 줘서 대단히 감사함.

- 한국 정부는 고려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음. 이는 또 우크라이나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이고, 우크라이나는 양질의 노동력과 세수를 확보하고, 치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따라서 고려인의 지위 합법화는 양국 정부에 이익이 될 것임.
- 한편,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경제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예정임. 우크라이나 내무행정 효율화를 위한 IT센터 건립사업, 인적자원 훈련프로그램 초청 등을 통해 협력증진을 기대함.

○ 마르마초프 내무부차관

- 고려인문제는 다른 소수민족 문제 해결의 모델이 될 수 있음. 앞으로의 성과를 위해 몇 마디 덧붙이겠음.
- 특별위원회를 실무그룹으로 전환해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긴밀히 다룰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고려인문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기대함. 루첸코 내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논의중임. 특히 한국의 하이테크, 교통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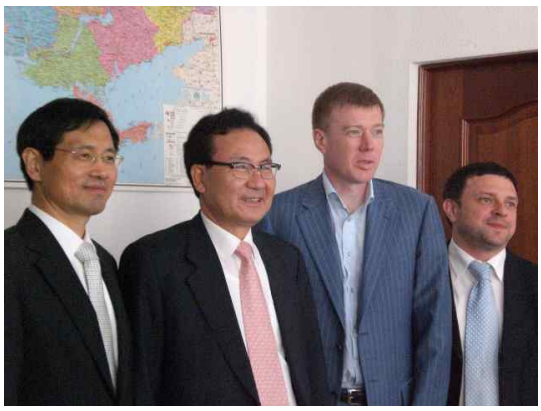
○ 박노벽 대사

-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에 대단히 감사함.
- 이범관 의원과 저는 내일 헤르손지역과 크림자치주 장꼬이 지역을 방문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며, 한국정부가 고려인 체류자격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분입증 서류는 있으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부류의 사람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내주어서 그들이 일자리를 찾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면 하는 것임.

○ **레페슈코 이민국장**

- 체류기간 만료자들은 우즈벡에 다시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신분을 대사관에서 증명해주면 출국하지 않아도 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음.

7. 세르게이 라린 한·우크라이나 친선협회 회장 및 까라까이 의원 면담



○ **라린 의원 모두 발언**

- 우크라이나에 오신 것을 환영함.
- 고려인 법적 지위 문제에 있어 의원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최근 이 문제와 관련 진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 5.29 고려인 특별위원회가 개최됨.

○ **이범관 의원**

- 작년 8월 의원친선사절단이 키예프를 방문했을 때 함께 와서 초르노빌 의원을 만났고, 야누코비치 당수를 면담했음. 또 의회를 방문해 의원들에게 고려인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바 있음.
- 이후 박노벽 대사와 우크라이나 내무부간에 이 문제를 두고 긴밀한 협의를 해왔고, 또 상당한 구체적 진전이 있었음. 라린 의원도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음.
- 5월초 루첸코 내무장관 방한시 만나서 협의했음. 그 때 장관님이 지원약속을 해주셨음. 오늘 아침에 내무부차관 및 관계국장들과도 만나 협의를 했음. 내일은 헤르손과 장꼬이 현지를 직접 둘러볼 예정임.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람.

○ **라린 의원**

-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한 많은 진전이 있었음. 이 모든 결과는 최용규 전 의원과 박노벽 대사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함.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른 소수민족과 별개로 고려인 문제만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음.
-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 정부가 무국적고려인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어떠한 지원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함. 만약 어떠한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는 고려인협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예를 들어 스페틀라나 김, 강정식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장, 크림주 심페로폴의 블라디미르 김 회장 등이 대표적 인물임.
- 고려인협회 지방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함.
- 고려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임. 우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이 안 돼 어려움. 한국기업의 투자가 아직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아쉬움.

○ **이범관 의원**

- 무국적고려인 문제는 ▶이들이 법률적으로 무지하고, ▶절차를 따를만한 돈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 핵심임.
- 이들이 무지한 법률적 절차에 대해 교육시키고자 함.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고려인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임. 또한 장꼬이 농업교육장처럼 소득증대 방안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립을 도와줄 예정임. 한편 한국기업인의 투자를 촉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임.

○ **라린 의원**

- 현재 크림주는 핵발전소 건립 프로그램을 추진중임. 2주전 한국전력의 김쌍수 사장이 방문한 바 있음.

○ **까라까이 의원**

- 고려인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고려인을 교육시키려면, 고려인협회에 법률가를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또 한국정부가 영사관을 설치하거나 명예영사제도를 도입해 고려인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도 효율적일 것임.
- 고려인 밀집지역에 한국학교를 세워 교육하는 것도 좋음.
- 또한 고려인들이 농업비지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대출신용보증을 서주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일례로 키예프에 국민은행 지점이 개설될 예정임.

○ **박노벽 대사**

- 영사관 설치는 시간이 걸릴 것이나, 교육원 설치는 검토중임.

8. 크림자치주 그리첸코 의회의장, 프라끼다 국무총리 면담

○ 그리첸코 의회의장 모두 발언

- 이범관 의원의 크림 방문을 환영함.
- 현재 크림자치주는 쏠키노 발전소 문제를 한국전력과 협의중임.

○ 이범관 의원

- 이번에 고려인 동포 체류자격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크림을 방문했음. 크림지역내 무국적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 법에 의해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하고자 함.
- 이들은 무지하고 경제력이 없어서 크림지역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체류자격문제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로 지난 2년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
-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협력도 있기는 하지만, 크림주의 무국적 고려인 문제는 크림 주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효과가 있을 것임.
- 크림주와 제주도가 자매결연을 맺으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 발전을 기대함.

○ 그리첸코 의회의장

- 현재 크림지역 고려인중 약 150-300명 가량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됨. 체류자격문제는 크림주정부가 직접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대사관, 고려인협회, 크림주정부간 협력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임.

- 고려인들은 근면하고 농업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이들이 합법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대함.

○ **이범관 의원**

- 고려인들이 크림주의 법을 잘 지키라고 계도하겠음.
- 이들의 경제적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농업교육장 등 여러 가지 지원계획을 구상중임.
- 장꼬이 농업교육센터가 영리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고려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고려인협회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강정식 우크라이나 고려인협회 회장과 최 블라디미르 부회장과 함께 방문했음.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그 방안을 찾아볼 것임.
- 이렇게 되면, 크림지역 여러 소수민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고려인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9. 헤르손 무국적고려인 면담

○ 조 트라핌 헤르손 고려인협회장

- 무국적 고려인 실태조사를 위해 2007년 헤르손시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며, 변호사를 고용해 체류자격 문제를 처리하고 있음. 한국정부로부터 월 2,000달러 정도를 지원받아 사무실 대여료와 운영비 및 앙케이트 조사비를 충당하고 있음.
- 헤르손에는 1,5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중이며, 이중 약 300여명이 무국적 상태임. 이들중 구소련의 여권 소지자는 상황이 안 좋은 경우이나, 이들도 대사관을 통해 서류를 준비 중임.
- 헤르손지역은 무국적고려인 실태조사도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12명이 국적 취득, 47명이 영주권 취득, 3명은 우즈벡 대사관에서 여권 취득, 4명은 우즈벡 국적 포기 서류 통해 거주 이탈 절차중, 7명은 우즈벡 대사관에서 신원 증명, 5명은 서류 완비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정상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은 35$ 정도이며, 대개 이 정도의 비용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급행료를 지불할 시 3,000-7,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는 소문도 있음)

- 박 블라디미르(63세, 2급장애인)의 경우, 1985년 우즈벡에서 우크라이나로 와서 거주등록청(OVIR)에서 우크라이나 임시여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류들을 제출했으나, 거주등록청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되더니 결국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지도 못했으며, 제출한 서류까지 되돌려받지 못함. 현재 신분을 증빙할 서류가 전혀 없으며, 농장 마굿간에서 경비일을 보며 한 달에 약 30달러를 받고, 겨울철에는 일거리 없이 음식만 제공받고 있음. 조 트라핌 회장이 여러 방면으로 증명서를 마련하기 위해 도와주고 있음.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6.15 판결이 있음.
- 그 외 무국적 고려인들도 개인 사정은 모두 다르나, 대부분 서류미비 등으로 거주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임. 이들 300명에 대해서는 조 트라핌 회장이 모두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체류자격 획득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1월 내무부장관령 발령후 거주등록청 등 지방관리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고, 체류자격 획득 방법을 몰라 포기했던 무국적자들도 이제는 트라핌 조 회장과 대사관의 도움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함.

☞ 고려인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헤르손지역과 달리 자뽀로지아 지역은 경찰들의 단속이 심하고, 고려인협회장도 동 문제에 무관심하므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자뽀로지아에는 5,000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거주등록자는 1,500명선임. 동 지역은 러시아에서 들어오기에 좋고 농업환경도 좋은 편이므로 집단농장도 상당히 많으나 농장주의 임금 및 거주등록비 등의 착취가 심해 고려인 공동체 형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함.

10. 세르게이 니꼴라비치 헤르손 이민청장 면담

○ **이범관 의원**

- 한국정부를 대표해 헤르손 지역 무국적 고려인의 체류자격 취득을 도와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림.
-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므로, 지방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기 바람.

○ **니꼴라비치 이민청장**

- 헤르손 지역 무국적 고려인에 대한 체류자격 문제는 한국대사관 및 트라핌 조 협회장과 긴밀히 협력해 해결해 가고 있음.